

현대사회와 성 역할*

—성 역할 구분 및 성 평등을 중심으로—

안 병 철**

- I. 머리말
- II. 성 역할 구분의 변화
- III. 성 역할: 생물적인가, 사회적인가?
- IV. 성 평등 정책의 효과: 스웨덴의 경우
- V. 맺음말

I. 머리말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사회에서의 성역할을 성 역할 구분의 변화, 성역할을 둘러싼 생물론과 사회적 구성론간의 논쟁, 그리고 성역할 평등의 장애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성역할을 논하기 전에 현대사회의 특성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현대사회는 산업사회라는 것이다. 전통사회가 농업에 기반을 둔 사회였다면, 현대사회는 기계화된 상품생산 및 교환에 기초한 사회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산업화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의 산업구조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산업화의 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취업자 구성비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1962년의 경우 전체 취업자중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0.9%에 달했으나, 1983년에는 33.3%, 그리고 1992년에는 20.8%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광공업 종사자는 1962년에는 11.8%에 불과하였으나, 1983년에는 21.8%, 그리고 1992년에는 23.2%로 증가하였다(경제기획원, 1962; 통계청, 1984; 1993). 이러한 산업구조상의 변화가 첫번째 특성이다. 둘째, 현대사회는 도시화가 그 특징이다.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이는 전통의 쇠퇴를 의미하며, 촌락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던 일상생활이 무너졌음을 뜻한다. 한국은 이미 70년대 후반에 전체 인구중에서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섰으며, 1990년 현재 도시인구는 전체의 74.4%에 달한다(통계청, 1992). 이러한 생태구조상의 변화가 현대사회의 또다른 특성이다. 셋째, 현대사회는 개인의 존엄

* 이 논문은 1993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성과 인간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다. 현대사회에서는 집단보다는 개인에 우선적인 가치가 주어져며, 타고난 신분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각자의 성취에 의해서 사회내에서의 개인의 위치가 정해진다. 최근에는 남녀평등이 한국사회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데, 여성 의식화 운동, 가족법 개정운동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다. 개인주의와 평등이데올로기의 추구가 현대사회의 세번째 특성이다. 요약하면, 현대사회는 도시산업사회이며,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이다.

현대사회에서 남녀간의 성 역할 문제가 학문적,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은 앞에서 살펴본 현대사회의 구조적, 이념적 특성 외에 다른 요인들과도 관련되어 있다. 먼저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여성노동자중 기혼 여성노동자는 1977년에는 9.7%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에는 20.7%로, 그리고 1988년에는 25.5%로 증가하였다(김혜경, 신현옥, 1990).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4명중 1명은 기혼 여성노동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는 생계해결, 생활수준 유지, 여성의 자아실현,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에 보내는 기간이 단축된 점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는 여성들의 이중노동의 부담, 자녀양육상의 문제와 같은 제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성 역할이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되게 된 두번째 요인으로는 196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여성해방운동을 들 수 있다. 특히 가사분업은 여성해방운동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는데, 그 이유는 전통적인 가사분업이 남녀가 동등한 직업 활동을 하는 데 주 장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Stafford et al., 1977). 따라서 여성해방론자들은 가사노동이 남성과 여성에게 얼마나 불공평하게 할당되어 있으며, 여성이 직장가정에서의 책임으로 인하여 얼마나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지적해 왔다.¹⁾ 본 논문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성 역할 문제를 성 역할 구분과 성평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는 먼저 성 역할 구분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어서 성 역할을 둘러싼 생물론과 사회적 구성론간의 논쟁을 알아보고자 한다. 끝으로 하나의 사례로서 성평등을 실현하려고 노력해 온 스웨덴의 경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성 역할 구분의 변화

경제생산의 측면에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수렵채취사회에서 원시농경사회, 농경국가사회, 산업사회로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은 후기 산업사회에 도달했다(정진경, 1992: 186). 이러한 시대구분에 따른 성 역할의 변화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남성과 여성은 종족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불가분의 공생관계를 가지고 살게끔 신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성 역할 구분의 본래 양상은 이 중요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연적 기능의 분화라 볼 수 있다. 여성만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기능은 재생산이고 이러한 중요한 재생산적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남성은 먹이를 마련해 오고 자연적 또는

1)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가사노동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남녀간의 역할공유라는 측면에서 모색되고 있다(김영희, 1990: 김미하, 1990)

인위적인 모든 외적 위협에 대해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원초적 남녀관계임은 원시사회에서나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현대의 남녀에게서나 다 같이 볼 수 있다(이인호, 1977:16).

수렵채집사회에서도 남녀간의 역할 구분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생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의 경제적 기여는 전체 식량의 60~80%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도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기도 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그들의 생산 활동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자녀 출생 후 3~4년간의 수유기간에도 아기를 업고 채집을 할 수 있었으며, 이유(離乳) 후에는 캠프(camp)에 남아 있는 어른들에게 맡길 수 있었다(Draper, 1975:90; 조옥라, 1986:11에서 재인용).

수렵채집사회에서 보여지던 남녀간의 역할 구분은 원시농경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농경 시작 이래 대두된 정착 생활의 결과, 토지를 둘러싼 경쟁의 부담과 인구의 안정된 충원을 위한 재생산 조건의 확보가 사회의 생존에 가장 핵심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남성은 영토 방어를, 여성은 양육(재생산)과 농경(생산)을 담당하는 성별 분업체계가 강화된 것이다(조옥라, 1986:13).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중심의 생산 방식은 자본주의 생산영역으로 편입되어 가정은 생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동시에 여성은 사적 영역인 가정 전담자로서 임금 생산자인 남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별 분업이 고착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대두는 생산규모의 증대와 임금 노동자층을 형성시키는 구조적 변화를 유발했으며, 전(前)산업시기에 생산활동을 했던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했다(조

옥라, 1986:27).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남녀간의 성 역할 구분이 보다 뚜렷해 졌으나, 이러한 경향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완화된다. 다시 말해서 가정 밖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서구사회의 경우 2차대전 이후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미국을 예로 들면, 1947년에는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20%였으나, 1978년에는 48%로 증가하였다(Smith, 1979:3-4). 최근의 미국 통계 자료에 의하면,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유배우(有配偶)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54%에 달한다(Collins, 1988:408). 우리 사회의 경우 1992년도 현재 전체 기혼 여성 중 임금 근로자는 35.2%이다(통계청, 1993). 앞서에서도 언급했지만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에 보내는 기간이 단축된 점, 생계해결, 생활수준 유지, 여성의 자아실현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성 역할 구분의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이제는 이러한 성 역할 구분이 생물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오랜 논쟁을 검토하고자 한다.

III. 성 역할 : 생물적인가, 사회적인가?

성 역할이라는 면에서 볼 때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남편이 부양자 역할을 담당하고 부인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유형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의 주된 책임이 부인에게 있는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남성이 부양자 역할을 담당하

고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것은 생물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 여기서는 이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남녀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성별 분업은 바람직한 것이고, 사회의 안정과 조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남녀는 유전적 특성이 다르고, 홀몬작용도 다르다. 로시(Rossi)에 의하면, 인류 역사의 90% 이상이 수렵채취사회였고, 우리의 유전인자는 가장 긴 이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1977; 엘리엇, 1993:45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서 인류는 큰 사냥감의 사냥과 집단방어 기술을 완비한 남성과 자녀출산 및 양육과 제한된 지리적 범위내에서 작은 사냥감과 식량채취를 담당하는 여성간의 성별 분업이 생존상 필요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의 이러한 분업이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유전적 특성 외에 홀몬작용의 차이가 남녀간의 역할분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즉 임신, 출산, 수유와 관련된 여성 홀몬이 임신부를 자극해서 신생아에 대해 보호반응을 일으키고, 남성에게는 없는 양육의 생리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생식기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성호르몬은 태내 발달 기간동안 뇌에 영향을 미쳐서 남녀간에 행동적, 심리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본다. 예를 들면, 남성 홀몬인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고, 양육행동을 억제한다(엘리엇, 1993:46~47). 대표적인 학자로 우리는 스티븐 골드버그(Steven Goldberg, 1974)를 들 수 있다. 그는 그의 주저 〈가부장제의 불가피성 *The Inevitability of Patriarchy*〉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성이 더욱 공격적 자질을 갖춘 자

가 될 수 있도록 부추기는 홀몬 체계를 제외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발견되는 성차는 없다고 우리는 전제할 수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부장제사회, 남성지배, 남성이 고위 직종에 종사하는 현상의 보편화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리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역할이 아닌 한 남성이 어느 사회건 지도력이나 높은 지위와 연관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불가항력적으로 ‘한 발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화를 통해서 여성은 남성과 경쟁하지 않도록 길들여져 왔고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임무를 더 유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음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물론 여성 중에는 공격적 자질을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어서 남성과의 경쟁에 이길 수도 있으며 나아가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 고위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여성들은 남성(남자는 공격적 자질을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과의 경쟁을 해야 하는 몸부림 속에서 낙후되기 십상이며 따라서 다수 성인 여성의 삶은 사회 일반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나 성공할 수 있는 분야에서 남성에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패배자로서의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것이다”(Goldberg, 1974: 104~107; 앤더슨, 1987: 60~61에서 재인용).

이러한 생물학적 주장에 대립되는 입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다양하고, 이 다양성은 남녀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는 또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의 문화속으로 사회화되고, 문화에 의해 규정된 역할을 학습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적 환경내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남녀 역할의 다양성을 주장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설명 중의 하나는 뉴기니아의 세 부족에 대한 마가레트 미드(Margaret Mead)의 연구이다. 미드의 보고에 의하면, 아라페쉬 *Arapesh*족에서는 남녀 모두 우리가 '여성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족에서는, 육아는 남녀 모두에게 승인된다. 반면에 먼더거머 *Mundugamor*족에서는 남녀는 모두 공격적이고 잔인하다. 챔블리 *Tchambuli*족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남녀 역할 중 많은 부분을 반대로 수행한다. 즉 여성은 경작지에서 일하고, 교역을 담당하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는 반면 남성은 집안 일을 돌보고, 자신들을 치장하고, 잡담을 나눈다(Mead, 1935; 엘리엇, 1993:48에서 재인용).

남녀의 역할이 문화적으로 규정된다는 입장에서는 아동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특정 모델을 계속해서 부여받고, 이러한 모델과의 일치에 기대되고 조장된다고 본다. 이것은 세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 첫째, 아동은 출생시 성에 적합한 이름과 성에 따른 의복이 주어진다. 둘째, 아동의 활동과 관심은 아동의 성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진다. 아동에게는 성에 따라 다른 장난감과 다른 놀이가 주어지고, 책과 TV 프로그램에서도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고정 이미지를 제공하며, 성에 적합한 기술을 훈련받는다. 셋째, 성에 적합한 행위는 부모, 교사, 다른 아이들로부터 보상을 받고, 성에 부적합한 행동은 이들로부터 징계를 받는다(엘리엇, 1993: 49~50).

지금까지 우리는 성 역할에 대한 생물론과 사회적 구성론을 살펴 보았다. 생물론이 주장하는 인간의 유전적 특성과 홀몬 작용의 차이는 초도로우(Chodorow)에 의해 반박된다. 그녀에 의하

면, 수렵채취 사회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적성들이 유전인자에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가설은 우리의 유전적 구성의 복잡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그녀는 홀몬의 기능에 관한 주장도 확정적이지 못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엘리엇, 1993: 50~53). 생물론의 주장은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반박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 역할이 전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 성에 따른 분업은 모든 사회에 존재하고, 이러한 분업은 그 내용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핵심은 여성의 어머니됨과 양육, 남성의 부양자 역할에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단순히 학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로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월경, 폐경,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신체적 경험은 여성 특유의 것이다. 그녀에 의하면, 자녀 분만 기저에 있는 재생산 및 내분비체계가 여성 심리와 가정생활의 조직에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종의 보존에 있어서 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결국 남녀는 다른 생물학적 존재이고, 따라서 다른 사회적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엘리엇, 1993: 51~54).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성 역할에 대한 생물론과 사회적 구성론 중 어느 한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즉 여성과 남성은 어떤 선천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남녀는 특정 기술을 학습하는 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생물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성 역할 평등을 추구해 온 스웨덴 사회를 하나의 사례로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V. 성평등 정책의 효과 : 스웨덴의 경우

지난 25년간 스웨덴은 성평등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해 왔다. 이 정책에 의하면, 남녀는 일 *work* 과 양육에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²⁾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남녀간의 완전한 평등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스웨덴 사회에서 성 역할 평등을 이룩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하스(Haas)는 이 요인들을 사회심리적 장애요인과 사회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1993:238-261).³⁾

사회심리적 장애요인들로는 (1) 아동기에 역할 모델로서 전통적인 부모를 가졌는지의 여부, (2) 부모가 되기 전 아동 양육의 경험 유무, 그리고 (3) 성 역할 태도가 검토되었다. 경험적 연구에서 이상의 세 요인이 모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업은 (1)과 (3)에 의해 비슷하게 영향을 받았고, (2)는 (1)과 (3) 보다는 영향력이 약했다. 그러나 사회심리적 장애요인들은 종속 변수(이 경우 가사분업)의 변량의 11%도 채 설명하지 못했다.

사회구조적 장애요인에서 핵심은 경제다. 경제가 가정에서 젠더 *gender*에 근거한 분업을 가져오고, 동시에 남성의 권력과 권위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경험적 연구에서는 (1)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일이 얼마나 있는지의 여부, (2) 성별 직종 분리의 정도, 그리고 (3) 소득에서의 남녀 격차가 성 역할 변화의 장애 요인으로 검토되었다. 먼저 시간제 일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근무시간의 차이가 클수록 자녀 양육을 공유하는 정도가 낮았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전일제 일자리가 있어도 이러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려는 여성은 거의 없었다. 여성들은 주 30시간 일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성공적으로 병행하길 바란다. 응답자 중 24%의 남성들이 시간제 일을 원하나 남성을 위한 시간제 일은 별로 없다. 남성이 주 30시간 일하면 성 역할 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사민당 내의 여성해방론자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동시에 환경당과 좌파당 *the Left Party*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이다. 이것이 시행될 경우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남성과 노조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 성 분절적 노동시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차지하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비전통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들보다 취업에 관심이 덜했다. 그리고 여성이 지배적인 공적 부문에서 일하는 남성들과 비교할 때 남성이 지배적인 사적 부문에서 일하는 남성들이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자녀양육에는 덜 참여했으며, 그리고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일을 선호하는 부인을 두고

2) 스웨덴 남녀평등 정책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이 삶의 모든 주요한 영역에서 같은 권리, 의무,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모든 개인은 그 자신이 살아 가기에 충분한 수입을 주는 일자리를 가져야만 한다. 둘째, 남성과 여성은 가정내의 양육과 일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셋째, 정치, 노동조합, 기타 다른 일들에 대해 여성과 남성은 같은 정도로 그 자신을 헌신해야만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다(이전정, 1992:147)

3) 하스(Haas)는 스웨덴의 고텐버그 *Gothenburg*시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과 가정생활에 대해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회수율 44%). 하스는 319 커플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1993 : 239).

있었다.

끝으로 소득격차에 대해 알아보자. 가정에서의 성별 분업을 논할 때 젠더 이론가들은 여성 임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이 적을 때, 여성이 남성과 양육역할을 공유할 구조적 기회는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으로 하여금 가사역할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할 때 여성은 약한 위치에 있다.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부인의 소득이 남편보다 적은 경우와 비교할 때 부인의 소득이 남편과 같거나 많은 경우 남편은 자녀양육에 더 참여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남편들은 시간제 일에 관심을 보였다.

요약하면, 사회심리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 모두 스웨덴에서 성 역할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중 사회구조적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의 경우 남녀간의 성 역할 공유를 이루려는 정책입안자들의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성 평등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밖의 사회제도들이 보다 급격하게 재구조화되어야 한다고 하스는 결론짓는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사회에서의 성 역할을 성 역할 구분과 성평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산업화 이전에도 남녀간의 역할구분은 있었지만 산업

화가 시작되면서 성별 분업이 고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다. 동시에 최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낮은 상태에 있다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성 역할을 둘러싼 생물론과 사회적 구성론간의 논쟁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성 역할에 대한 생물론과 사회적 구성론 중 어느 한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끝으로 우리는 정책적으로 성 역할 평등을 추구해 온 스웨덴 사회를 하나의 사례로서 검토해 보았다. 남녀간의 성 역할 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책입안자들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심리적, 사회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아직 성 평등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스웨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성 역할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장애요인들을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면, 성 역할 고정관념, 성별 직종분리, 그리고 남녀간의 소득격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적인 노력없이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1962. 「한국통계연보」. 246쪽.
- 김미하. 1990. “노동자 가족의 성별 분업: 남성의 양육 참여를 중심으로”.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까치, 207~
- 김영희. 1990. “가사노동에 대하여”. 한국여성연구회 편, 「여성과 사회」 창간호, 창작과비평사, 212~221쪽.

- 김혜경, 신현옥. 1990. “제조업 생산직 기혼여성 노동자의 상태와 문제”. 한국여성연구회 편, 「여성과 사회」 창간호, 창작과 비평사, 282~318쪽.
- 앤더슨, 마가렛 L. 1987. 「성의 사회학」(이동원, 김미숙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엘리엇, 페이스 R. 1993. 「가족사회학」(안병철, 서동인 역), 을유문화사.
- 이건정. 1992. “사회민주주의하의 스웨덴 여성”. 한국여성연구회 편, 「여성과 사회」 제3호, 창작과 비평사, 143~179쪽.
- 이인호. 1977. “성 역할에 관한 편견과 그 수정을 위한 교육의 역할”, 신세호 등 편, 「한국인의 남성 및 여성 역할관」, 한국교육개발원, 15~29쪽.
- 정진경. 1992.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성 :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강조”.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9권 2호, 185~196쪽.
- 조옥라. 1986.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집, 9~35쪽.
- 통계청. 1984. 「고용구조조사 보고서」.
- _____. 1992.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_____. 1993. 「고용구조조사 보고서」.
- Collins, R., 1988, *Sociology of Marriage and the Family*(2nd ed.). Chicago : Nelson-Hall Inc.
- Haas, L., 1993, “Nurturing Fathers and Working Mothers : Changing Gender Roles in Sweden”, in J. C. Hood(ed.), *Men, Work, and Family*. Sage Publications. pp. 238~261.
- Stafford, R., Backman, E., and Dibona, P., 1977, “The Division of Labor among Co-habiting and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 43~57.
- Smith, R. E., 1979, “The Movement of Women into the Labor Force”, in R. E. Smith (ed.), *The Subtle Revolution*. Washington, D. C. : The Urban Institute.